



연중 제19주일

입당송 시편 74(73), 20, 19, 22, 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고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지혜 18, 6-9

화답송 시편 33(32), 1과 12, 18-19, 20과 22(◎ 12-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 계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 11, 1-2, 8-19 <또는 11, 1-2, 8-12>

복음 환호송 마태 24, 42, 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루카 12, 32-48 <또는 12, 35-40>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 12, 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순례지

답동 주교좌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관할

인천교구 / 032-762-7613

답동 성당은 인천교구 주교좌성당으로서 1888년 개향한 제물포 지역에 조선교구가 대지를 물색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지 매입을 결정한 파리 외방전교회가 빌렘 신부(한국명 홍석구)를 초대 주임 신부로 파견하였고, 1889년 7월 1일 제물포 본당(현 답동성당)이 설립되었다.

1893년 본격적으로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1894년 청·일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1897년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1890-1933년 재임)의 주례로 역사적인 축성식을 가졌다. 성당 건물은 전면에 3개의 종탑을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신자 수가 늘어나자 증축 계획을 세우고 1935년부터는 성전의 외곽을 벽돌로 쌓아 올리는 개축 작업을 시작하여 1937년 마무리하였다. 1981년에는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 287호로 지정되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자선을 베풀어라.” (루카 12,32.33)

박성욱 엘리야 신부

사회사목국장

“선생님,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나? 참, 짜질하구나. 공부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야. 갓난아기는 자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웃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찢찢매기도 하고, 젖도 물려주면, ‘이 사람은 누구지? 왜 그러는 거지?’하고 궁금해해. 그러다 그 여자가 “엄.마.’해봐. 엄마.”라는 말을 듣고 ‘엄마’를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야.”

예전에 <마녀의 교실>이란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걸 듣고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랑을 받아야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며, 그렇게 공부하고 알게 돼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고 싶어지고,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매우 호되게 대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마주할 세상의 힘겨움을 알려주고 굳건히 살아가게 하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짜질하다.’고는 하지만, 어디서든 듣기 힘든 깨달음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작은 양 떼야”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말로 ‘작은’은 소박하고 귀여운 느낌이지만, 성경에서 본래 의미는 ‘적은 양 우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짜질이’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위 선생님처럼, 작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영원히 기쁘고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짜질이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주실 만

큼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를 사랑하여라.’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행복 선언 첫 구절(마태 5,3; 루카 6,20)의 감동을 이어가시며 그 행복을 누리도록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은 그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도움받을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가져다주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며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아,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거나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 우월함을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자선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창조됐음에도 세상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편에서 함께 아프고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하늘에 마련할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은 자선의 횡수와 총합계 금액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눈 ‘사랑의 추억’입니다.

이 사랑의 추억은 하나님께서 먼저 ‘작은’ 우리를 사랑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수많은 성인과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작은 양 떼”라는 사실과, 그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이 영원할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총이고, 그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자선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



의정부교구 보고서 요약 - 6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쇄신하는 교회”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열려 있고 연대하는 교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이번 주에는 보고서에 담긴 10개의 주요 주제 중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8.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쇄신하는 교회

① 현실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을 깨닫고 그분을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 요즘은 그럴 수 없어 아쉽다.”
“빨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전처럼 다 함께 교리공부, 여름캠프, 물놀이를 하고 싶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졌다. 미사에 참석할 수 있을 때도 코로나를 핑계로 불참하고 있다.”

② 위기와 고난에 함께 대처하는 공동체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이 모두 격리돼 있을 때 이웃 형제 자매님들이 안부 전화, 기도, 미사 봉헌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2년 넘게 주임 신부님 강론과 본당 소식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구역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주일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③ 과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신자들이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신자들에게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신자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주시면 좋겠다.”

9.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열려 있고 연대하는 교회

① 이웃 종교인과의 소통과 연대

“개신교 신자들은 일상과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웃 종교인을 만날 때 종교 이야기를 피하기보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면 좋겠다.”

②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대

“지역사회 안에도 하느님의 집이 있다. 교회와 신자들이 지역사회에 닫혀 있지 않으면 좋겠다.”
“성당 공간을 이웃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③ 생태환경보호

“본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탄소 배출 줄이기 등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실천하는 삶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신자들이 실천하는 작은 환경보호 노력이 사회에 모범이자 말 없는 선교가 될 것이다.” 🌱

의정부교구 시노달리타스 팀

바닷가에서 발견한 인생의 재미

오후 4시가 가까워질수록 몸이 무겁다. 하루 중 가장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돌아오면 씻기고, 저녁 차려서 먹이고 치우고, 재운다. 하루도 건너뛸 수가 없다. 어제와 완전히 똑같은 오늘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나와 아이들의 마음상태가 조금씩 다르고, 어젠 징그럽게도 밥을 안 먹던 아이들이 오늘은 그릇을 싹싹 비우기도 하니깐. 근데 너무 지겹다. 지겹고 힘들 것 이 뻔한 시간이 다가오자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속초로 갔다. 어차피 거기 가서도 밥 차려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재우는 일은 똑같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하면 덜 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남편은 일해야 하니 나랑 아이들만 갔다. ‘혼자 애들 셋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애들이 좋아하겠다. 대단한 엄마네.’ 하는 말에 고갤 끄덕이며 우쭐대는 마음도 들었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구하려고 떠난 여행이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얼른 바다로 나가자고 조르더니 날이 갈수록 느긋해져서 나중엔 내가 가자고 재촉하게 되었다. 일정 중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놀던 날, 아이들이 별로 재미가 없나 싶었다. 까르르 웃음소리는 커녕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것이다. 아이들은 모래놀이용 장난감으로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큰애는 구덩이 안에 쪼그려 앉아 모래를 밖으로 퍼내고 동생들은 컵에 바닷물을 담아 구덩이로 옮긴다. 세 아이가 한참을 몰두했지만 구덩이는 더 커지거나 깊어지지 않는다. 한 번씩 큰 파도가 오면 애써 파놓은 구덩이가 허물어지고 모래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탄식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따름이다. 하도 부질없고 따분해 보여서 나는 아이들에게 물에 들어가서 놀라고 꼬드겼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다. “아니야, 이거 너무 재밌어.” 할 수 없이 나도 옆에 앉아 기계처럼 반복하는 아이들의 몸짓을 지켜보는데 웃음이 났다.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서 도망쳐왔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재밌는 일이었나. 바닷가에 모래를 쌓는 것 마냥 부질없이 느껴지던 하루하루. 해봤자 티도 안 나고 성과도 없는 노동의 연속. 하지만 인생의 재미는 그런 데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흥분이 가라앉고 낮선 동네가 익숙해질 즈음 그걸 깨달았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큰애는 학교에,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에,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후 4시가 되면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러가는 것도 여전하다.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는 도중에 종종 떠오르는 속초의 풍경은 세 녀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모래를 파고 물을 담던 장면이다. 한참을 몰두하고도 모래성 하나 쌓지 못하는 놀이지만 괜찮다. 무표정하게 수행했던 지루한 일과들이 내 안에 근사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괜찮다. 나를 가장 지치게 하던 일이 어느 샌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인생의 파고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이자 세 아이의 엄마. 홍보국에서 주최하는 글쓰기 강좌 〈함께 쓰는 기쁨〉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 복음화 사명의 도구인 사회 교리

-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건전한 영성’ ② (회칙 「모든 형제들」)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쫓개지 않고 모음으로써, 종오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그 불길을 진화(鎮火)함으로써, 새로운 방벽을 세우지 않고 대화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평화(平和)의 장인(匠人)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시다”(「모든 형제들」 284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사목 헌장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는 ‘인간의 활동’(3장)과 ‘교회의 임무’(4장)가 ‘인간 존엄’(1장)과 ‘인간 공동체-공동선’(2장)의 증진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사목 헌장의 마지막 장은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인데, 이는 회칙 「모든 형제들」이 성찰하는 긴급한 사회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유의 도로지도 없이’ 1970-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그 결과 인류가 오늘날 ‘새로운 사태’, 곧 세계평화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기쁨」 2장 후반부에서는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몇몇 ‘유혹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내재의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공동체적 친교와 형제애(관계), 유대와 연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87-92항 참조). 그리고 교황은 이런 영적 세속성(93-97항 참조)을 다른 교황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장에서 오늘날의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주의’로, 곧 “거룩함의 교활한 두 원수”로 고발합니다. 이 둘은 ‘거룩함으로 포장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35-62항 참조).

「모든 형제들」 2장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들이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들 안에서 비밀 동맹자들을 찾아낸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강도들은 “사회를 조작하고 기만하는 자들”이며, 비밀 동맹자들은 “자신들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공정하게 비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회체제와 그 체제의 혜택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75항).

「모든 형제들」 8장의 제목은 “우리 세계에서 형제애(관계)에 복무(服務)하는 종교”입니다. 복무는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이란 의미입니다. 이 회칙은 서로 다른 종교의 믿는 이들이 나눠야 할 “대화의 목표가 우애, 평화, 조화를 확립하고,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영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들과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271항). 교황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종교인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자고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참된 ‘대화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을, 중개자(仲介者)들이 아니라 진정한 중재자(仲裁者)들이로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중재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오히려 소진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아낌없이 다 쓰면서, 유일한 보상이 평화라는 것을 압니다”(284항).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 위 글에 나오는 인용은 필자의 번역에 따릅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포도원지기 (아가 1,6)



사론의 수선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을 벗 삼아 오래 살다 보면 중동인 특유의 외모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도 상상해보게 되지요. 까만 눈동자에 굵을 머리, 해에 그을린 피부. 아가 1,5-6에 등장하는 소녀가 딱 그 외모인 듯합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나 비록 가뭇하지만 여여쁘답니다. 케다르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반히 보지 말아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까요." 중동의 태양은 정말 지독해서, 연탄 검댕이 묻은 듯 피부가 거뭇거뭇해집니다. 창백한 서양인들은 적갈색 피부가 멋지다고 하지만, 피부가 검은 사람은 흰 피부를 동경하는 법이지요.

아가의 소녀가 가뭇해진 건 포도원에서 오래 일한 탓입니다(아가 1,6). 가족의 생업을 돕느라 제 몸 가꿀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자기 피부를 "케다르의 천막"과 "솔로몬의 휘장"에 견주는데요. 둘 다 검은 염소 털로 만들어 흑진주 색이기 때문입니다. 케다르는 옛 아라비아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데(에제 27,21) 창세 25,13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케다르는 '검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다르'와 철자도 같습니다. 피부색뿐 아니라 그들이 살던 천막(에레 49,29; 시편 120,5 등)도 검었음을 드러내듯 말이지요. 활 솜씨가 뛰어났던 이들(이사 21,16-17)은 에돔 땅 동편의 광야에서 방목하며 염소 털 천막을 집 삼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탈출 뒤 광야에서 머물 때 주님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을 염소 털로 만들었지요(탈출 26,7).

2000년 전 어린 마리아의 모습도 떠올리게 해주는, 아가에 나오는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가는 노골적이고 색정적인 애정 표현이 많아 정경에 들어가는 데 논란이 많았지만, 아가의 연인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로 풀이되면서 경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아가 2,16)이라는 고백은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한 레위 26,12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게다가 아가의 두 연인은 서로에게 '죽음만큼 강한 사랑'(아가 8,6)을 고백하는데요, 이런 사랑을 몸소 펼쳐 보인 인물도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으니 참으로 죽음만큼 강한 사랑이지요.

아가 2,1에서 소녀는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에 비유합니다. 이는 지중해안에서 주로 피는 꽃으로 이후 예수님의 상징으로 발전합니다. 놀랍겠지만 우리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도 사론의 수선화 중 한 종류입니다. 악조건에서도 끈질기게 피는 '영원한 꽃'이지요. 몸을 사리지 않고 이스라엘 포도원을 가꾼 수선화 소녀와 죽음만큼 강한 사랑을 펼쳐 보이신 예수님의 수선화 그리고 오래 이어진 한민족의 무궁화.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궁화가 천대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론의 수선화를 더 많이 심고 사랑할 것도 생각해봅니다. ☼

김명숙 소피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구약학과에서 공부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수도자 신학원 등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에제키엘서>와 <예레미야서 1-25장>, <예레미야서 26-52장>이 있다.

까뮤의 「행복한 순간이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절망하고 비탄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을 구원하리라 믿었던 그분과 함께 빵과 생선을 나누어 먹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을 키웠지만 죽음 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룩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요. 이윽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이제는 제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믿음과 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에 의지하여, 샌들을 신고 지팡이 하나와 함께 내딛었을 그 발걸음. 이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희망의 순례자들” Pellegrini di speranza이란 주제로 희년 Jubilee이 선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거듭남’의 표징으로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희년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났던 그 길, 바로 우리에게 이어진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희년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언젠가 찾아올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은 어떻게 내딛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새로운 성가를 만들며 들었던 고민에, 불현듯 몇 년 전 운정성당 청년미사에서 예수성심대축일에 들었던 강론이 떠오릅니다. “다른 이가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이별의 아쉬움과 희망의 눈물을 흘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희망과 위로를 나누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과 그 발걸음이 모여 내일로 향한다면, 그 끝에서 우리는 사랑 가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품은 씨앗이 희망과 믿음으로 자라 다른 이에게 행복이 된다면, 사랑과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다른 이가 나로부터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성가를 부르는 이 길,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 언제나 함께할 것이란.
기억, 상냥히 마음 어루는.
위로, 현실의 불안, 아픔에 기도!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요.



지금 여기 오늘이 행복한 순간이길.
다른 이가 내 안에서 하느님 찾을 수 있도록
이 길, 걸어갈게요. 🍀

성가 “행복한 순간이길”은 2022년 제 15회 수원교구 창작성가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이 곡을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교구장 동정

8월

11(목)

09:30

부제, 신학생 전체 야유회 - 속초



교구
소식

참회와속죄의성당 평화의 문(봉안당) 미사 안내

매주(금) 10시 위령미사 봉헌

[나무그늘 공모] 지금 우리 본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 본당의 활동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행사나 모임, 우리 본당의 소식을<나무그늘>을 통해 전해주세요. 사진과 함께 짧은 글(5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선교사목국 samok@uca.or.kr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제11기 순례단 모집

순례일정 9/24 ~ 11/5, 매주(토) 7구간 결단미사 9/14(수) 19시 신앙교육원

대상 누구나(교구신자 우선) 105명 (5개팀 21명씩), 청년(20세~만35세 미혼남녀)이 많은 경우 별도 팀 구성 운영
참가비 8만원, 청년(20세~만35세 미혼남녀)의 경우 순교자공경위원회 참가비 50% 지원

모집일정 8/14(주일)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교구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cujbmhc>) 또는

이메일 (cujbmhs@hanmail.net) 접수, 각 본당 순교자공경회 봉사자를 통한 접수 가능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신입직원 모집

모집분야 회계, 세무 업무

자격 ERP 회계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

인원 0명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자격증사본 (해당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마감 8/19 (우편소인)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우편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이번 주 전신자 성경 읽기

8/7(주일)~13(토)

마태오 복음
22,1-22



- 앞의 구절을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천주교 의정부교구” 채널





미사 · 피정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8/14(주일)~15(월), 9/3(토)~4(주일)
3박 4일: 8/25(목)~28(주일), 9/30(금)~10/3(월)
8박 9일: 9/19(월)~27(화), 10/25(화)~11/2(수)
40일: 9/14(수)~10/23(주일)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8/13(토) 10시 풍동 성당
8/20(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일시: 8/27(토)~29(월), 9/3(토)~6(화),
9/15(목)~17(토), 9/19(월)~21(수)
접수: 02-773-1455, 064-796-4182

한마음 수능 100일 피정

일시: 8/9(화) 10시~16:30, 8/1(월) 마감
대상: 수능 대상 학부모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피정비: 1인당 3만 원
문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031-840-0018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일시: 8/20(토)~22(월), 8/26(금)~28(주일)
추자도: 9/3(토)~6(화), 9/25(주일)~28(수)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왜관 수도원에서 하루 피정

주제: 영적 치유와 성장(토마스 머튼 영성)
지도: 박재찬 안셀모 신부(성 베네딕도회)
대상 및 인원: 본당 제단체 (20~40명)
문의: 010-6791-0071 (점심 제공 / 1박2일 가능)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일정

열썬(월/수) 쉬은 맥성경 (7/4부터 시작)
월: 오전-구약 1강의, 오후-구약 2강의
수: 오전-신약 1강의, 오후-신약 2강의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맥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무료 교육 과정입니다.
장소: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샘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교구 성령새신 금요밤기도회 안내

[찬양과 치유기도회]
강사: 주미숙 요안나(의정부교구 말씀봉사자)
일시: 8/12(금) 21시~00:2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장소: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일시: 8/12(금)~15(월), 8/26(금)~29(월)
9/23(금)~26(월), 10/7(금)~10(월)
10/21(금)~24(월)
문의: 글라라 010-9363-7784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안내

화요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화) 18시 30분~22시
치유 대피정
일시: 8/13(토) 12시30분~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교육 · 모집 ▶▶

행신1동 성당 관리장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 가스
안전 소지자), 기타 자격증 우대
마감: 8/26(금)까지 (본당 홈페이지 참조)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zoom강의)

기간: 10월부터 1년 (3개월에 30만원)
시간: 19:30~21:30 (히브리어-수, 히랍어-월)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예수회센터 프로그램(9월 개강)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19번에 의한
영신수련) -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매주(수) 10시~12시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 서명원 신부, 매주(화) 14시~16시
영어성경 나눔(ZOOM), Kister 신부
- 매주(목) 18시~19:30, 19:30~20:30분
영성과 철학상담(ZOOM) -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매주(화) 19시~21시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민들레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모집

모집 인원: 1명 생활복지사
자격: 사회복지사2급 이상 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초, 중, 교사 자격증 소지자
접수 마감: 8/20일(서류 접수 후 면접)
응시방법: mdr.1221@hanmail.net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42
자세한 사항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2022 가톨릭유직캠프(1박2일) 접수안내

일자: 8/26(금)~27(토) 1박2일
장소: 파주 민족화해센터(참회와속죄의성당)
과목: 성가발성, 소프라노, 알토, 남성반 등
주최: 모니카교회음악원
후원: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문의: 심준보베드로 010-5245-284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생활재활교사 모집

자격: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www.haemil.or.kr
문의: 031-965-0028

다함께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금) 11시, 문산 (토) 10시
시스피나 010-9842-8818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대 상	문 의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수시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010-9353-1773 노아수녀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여성	010-8078-7016

미사

에피파니아 열린 미사

일시: 매주 주일 17:30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라운지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4층

문의: 인스타그램 DM(@ephiphania.c) 또는 031-901-1460

모집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비올라, 오보에, 클라리넷

오디션: 8/21(일) 13시 / 문의: 010-3642-3574

대상: 초등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일산 대학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오디션곡은 자유곡)

한남성서연구소 비잔틴이콘 강습 제1기 모집

대상: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신자

비잔틴이콘을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는 전공자

일시: 9/1(목) 개강 ~ 12/1(목) 종강

매주(목) 12시~15시 (총 12회)

9/8(목), 10/6(목) 휴강

수강료: 38만원, 재료비 포함

이콘판 및 개인보 별도

인원: 약 8명 / 장소: 한남성서연구소(의정부)

문의: 031-846-3467, 010-5422-3919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홈토킹! 화상 영어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

즈니스 영어 / 문의: 053-593-1273

노들담 예비신자 교리 비대면 연수

일시: 8/23(화), 27(주일), 30(화) 택 1

시간: 13시~17:30

문의: 연구소 010-6300-6318



안내 · 기타 ▶▶

부산~마산/대구대교구순례/왜관수도원탐방

출발: 서울 구파발 대형버스 35명 이내

일시: 9/1(목)~4(주일) - 부산~마산

11/11(금)~15(화) - 대구(울릉도 포함)

12/3(토)~5(월) - 대구17성지

12/16(금)~19(월) - 부산~마산

머무: 왜관수도원 피정의 집

문의: 010-3807-187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15(토)~27(목) 터키, 그리스 510만원

11/1(화)~12(토) 동부유럽 385만원

11/1(화)~12(토) 성모발현지 375만원

11/15(화)~25(금) 발칸반도(메추고레) 365만원

12/2(금)~10(토) 이스라엘 370만원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및 개별상담

대상: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일시: 8/14(주일) 14시~17시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문의: 010-3817-0567 노혜인 선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2년 가을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10/1(토) 산티아고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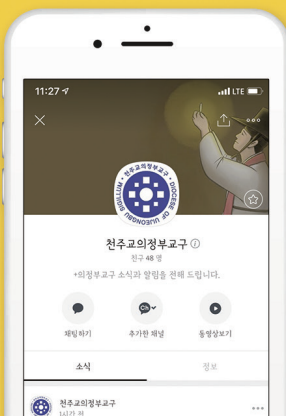
10/1(토) 이탈리아 9일

10/22(토) 이태리, 알프스, 루르드 10일

11/2(수) 이스라엘 10일

11/14(월) 반뇌, 루르드, 파티마 13일

홈페이지: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천주교의정부교구 KakaoTalk 채널 오픈!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구약성경에서

'자비'와 관련된 어휘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햄라] (창세 19,16)

[라훔] (탈출 33,19)

[하난] (탈출 33,19; 34,6)

[라하밈] (창세 43,14; 신명 13,18; 이사 47,6)

[헤세드] (창세 21,23; 탈출 34,6; 신명 7,9; 2역대 32,32)

[헨] (창세 39,21; 탈출 3,21; 신명 24,1)

[라함] (창세 29,30; 이사 49,15)

성경이야기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그분 '정의의 실현'을 뜻합니다. 이는 하느님만이 지니신 고유한 것으로, 하느님의 자비에서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활동, 곧 당신의 신비를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처음 계시하실 때 "나는 있는 나다." (탈출 3,14) 하신 말씀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울부짖음을 듣고 너희의 탄원을 들어 주는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네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 (탈출 33,19). 여기서 "동정을 베풀다"는 말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고유한 자유를 드러냅니다. 이어 세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탈출 34,5-6). 하느님의 자비는 그분의 진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당신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어 성실하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본성에 관한 진술은 이성적 논리나 사변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모든 예측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분노는 그분 자비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분노를 감정이나 체벌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한 거룩한 역동적 본성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고와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죄와 벌을 넘어서는 정의며 신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계약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진실하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그분 안에서 자신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